

##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는 뒤지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과, 14장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교회에서 그것들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쓰려하며, 또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은사들의 오용에 대해 고린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은사와 그것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이 신령한 것**(영어로는 “은사”로 되어 있으며 이탤릭체로 씀)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12장을 시작합니다. 이탤릭체로 된 “은사”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번역자에 의해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좀 더 내려가야 나오는데 사실 원문에는 1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은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신령한 은사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은사들이 어떻게 교회에서와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말하기를, **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그전에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성령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너희의 영이 죽었었습니다. 너희는 그전에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희는 새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성령의 삶은 완전한 새로운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영적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때 너희는 육을 따라 육체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고, 오직 아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 신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 함은 신령한 삶에 대한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신령한 삶이란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전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의 정욕에 끌려 우상들을 따라다녔다고 하셨습니다.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 당시 하나도 증명되지 않았던 소문들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들은 사람이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멀리 옮겨져 그 근거지를 전혀 찾을 수가 없지만 추측컨대 어떤 사람이 예배 도중에 일어나 방언을 했고, 거기에 그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방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런 소문은 고린도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오랜 옛적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소문들은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낙담시키려고 퍼뜨립니다. 방언을 말할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너희가 어떤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하며, 너희가 방언을 할 때 사실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대해 말씀하시면서, 만일 세상의 아버지들이, 누가 아들이 와서 떡을 달라 하면 떡 대신에 돌을 주며, 또 그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아버지께 있었느냐? 너희가 세상의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연다고 하여 사단이 와서 덮치는 그런 거짓된 경험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입니다. 너희 세상의 아버지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에 의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시인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진정으로 이렇게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기에 있는 은사란 단어는 헬라어에 사용된 것입니다) **성령은 같고**, 바울이 잠시 후 우리에게 목록을 줄 것인데, 그것은 다양한 은사들 중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28-30절).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좀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적고있습니다(로마서 12:3-8). 고린도전서 12장의 앞부분에 언급된 처음 9 가지 은사 중에 들지 아니한 은사들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비록 은사는 다양하나 성령은 동일합니다.

**5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이나 행정은 다양하나 주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룰 성령의 은사들이 있고, 바울이 이 장의 끝 부분에서 다룰 행정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의 행정적 은사들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정적 은사가 있지만 주는 같으며, 성령도 같습니다.

**6 또 역사는(또는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므로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은사들의 활동 안에 삼위 일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역사 또는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비슷한 성령의 은사를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항상 같은 양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가 나의 삶의 한 면에 역사하신 것이, 같은 성령의 은사가 당신에게는 다른 면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생각과 사상들을 심어 넣으시면 나는 그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성령에 의하여 나의 마음에 먼저 심겨져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언의 은사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당신이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사역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어떤 한 공식으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이, 내가 피아노 아래에 누워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 당신은 생각기로, 나도 피아노 아래에나 교회의 긴 의자 밑에 누워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형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약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치유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죽기도 합니다. 각각 역사 하심이 다릅니다.

나는 중병에 걸린 소녀아이를 위해 기도 요청을 받은 때를 기억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고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몇 분이 나와 함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아이에게 손을 얹고 나는 그 여자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아이의 이마에서 느꼈던 뜨겁던 열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마쳤을 때는 이 여자아이의 열은 떨어졌고 즉시 아이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그 아이의 이마에 어떻게 손을 얹었지? 내가 무엇이라고 말했지? 와, 치유가 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했지? 우리는 그것을 공식화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다른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니(Finny)박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사랑의 물결이 그에게 흘러 넘쳐 그를 압도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의 물결이 파도 칠 때마다 그에게 흘러 넘쳐 그를 삼키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주님께 더 이상 강당할 수가 없으니 이제 그만 멈추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 사랑의 물결, 너무나도 대단하게 들리므로, 주님! 이 사랑의 물결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공식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를 보면 어느 경우에도 똑같이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각 경우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손을 사람에게 얹었을 때 성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의 경우엔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받았습니. 고벨료의 집에서는 베드로가 강론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이므로 항상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개인의 삶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공식화하거나 규정지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모방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든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을 감동시키시어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고, 치료해 주셨으며, 역사 하셨던 것에 대해 그들은 매우 감사해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사해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답하기를 원하도록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자였고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마약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갈보리 채플에 나왔고 주님을 영접하므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우연하게도 그는 갈보리 채플의 목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해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약으로 병들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있는 이 아들을 어찌할 바를 몰랐고,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나의 사무실에 와서는 그의 수표책을 꺼내더니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또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나는 아무 것도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보답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유익이 교회 전체에 있어야 합니다. 은사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교회 전체의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8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정탐기 위해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배경에서 온 사람들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 이방인 신자들에게, 당신들은 실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에 대해 전해 듣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을 찾아내서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것들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권한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같이 가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 짓자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몇몇 형제들과 이러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라야 하는지 아닌지,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첫 번째 교회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교회의 공회원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자기를

부르셨는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다음 야고보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읽으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를 기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야고보가 정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하여 그리스도의 형제로 환영하고 음행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에 만족하였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야기되었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지혜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받았고 솔로몬의 지혜는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내가 젊은 목사로서 한 20대 초반에 두 번째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을 때, 연중 행사로 야외 예배를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리조나 주 투손에 살고 있었는데, 7월 4일날 해발 6천 피트 가량 되는 레온 산으로 미국 독립 기념일 피크닉을 갔었습니다. 사막의 더운 열기로부터 시원한 산에서 갖는 피크닉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물론 아리조나 주에는 테이블 화장실 등 모든 시설을 잘 갖춘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있었으므로 야외 피크닉 장소로는 적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몇 사람이 산꼭대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는 약 1 마일 가량 비포장 도로를 가야 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독립 기념일 피크닉으로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테이블도 없고, 공공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그냥 기도 모임만 갖자고 했습니다. 왜 피크닉을 하나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 교인이 이 산에 올라 기도 모임을 갖는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설득시켰습니다. 한편 반대하는 쪽에서는 안됩니다. 휴만 있는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며, 손을 씻거나 화장실 시설도 안된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7월 4일에 기도하러 가자는데 어떻게 안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령한 자들의 기도 모임을 하자는 우리와 그저 피크닉을 원하는 실질주의의 우리가 생겼고, 기도 모임을 원하는 사람들은 주립 공원으로 간다면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다른 우리는 산으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은 안 가겠다고 하며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시점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해결을 보든 어느 정도는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제직들에게 결정케 했습니다. 결국은 제직들이 지혜롭게 주립 공원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결정에 불만을 갖은 사람들에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직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결정한 것이니 그저 따르자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자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지혜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바로는 누가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겠는가 하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의 올바른 적용을 말합니다. 지식은 많이 있지만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없는 지식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당한 지식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식의 말씀,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추론에 의하여 아는 것이 아닌, 성령의 계시로 알려진 것을 말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주님께 헌신하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팔아, 그 돈을 사도의 발아래 놓으면, 교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도 그들의 재산을 팔아 전부가 아닌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 다를 바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발아래 내려놓자 베드로가 질문하기로, 이것이 전 소유를 판 값이냐? 할 때 아나니아는 그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진실을 아나니아에게 말할 때 그것은 지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사실은 조금은 숨겨두고 전부를 드러는 것처럼 위선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대저 여호와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9 다른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한 마흔 살 정도의 앓은뱅이 된 자를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와 솔로몬의 현관 미운이라는 성전 문에 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 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말하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일으키니 그가 곧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다리에 힘을 얻었고 걸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과 뛰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은 미운에서 구걸하던 앓은뱅이가 아니냐 하니, 다른이들이 그 사람 같다며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가 있을까? 하니 우리도 모르는 일이라 하며 서로 수군 뒀습니다.

그 때 나온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고 끌어안으니, 백성들이 이 기적이 베드로와 관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아주 대단한 성자인양 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지 않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느니라. 그리고는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것은 실로 나의 믿음이 아닌 주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곧 믿음의 은사가 역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순간적으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이 그 믿음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로서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환경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년 전 선골라워 길과 그린빌 길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시무하고 있을 때, 아침 예배 후 어떤 아이들이 바퀴 달린 의자에 앉으신 그들의 할아버지를 밀고 문 앞에 서있는 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말하기를 척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물론이지 라고 말하고는, 그 할아버지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앓은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을 막 읽은 후라서, 나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행했던 일을 나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서 두 발로 서게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걸으라 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걸으신다! 하며 펄펄뛰며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배당의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이러한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의 역사였습니다.

그 주 수요일 밤에 친척들과 추수 감사절을 같이 보내기 위해 특선으로 갔습니다. 몇 년 전에 그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으므로 수요일 저녁 추수 감사절 예배에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한 남자가 휠체어에 태운 아내를 데리고 나에게 다가와서는, 아내가 뇌졸중이 왔는데 낫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 그녀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계속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나가자 내 아들 척 주니어가 말하기를, 아빠! 지난 일요일에 아빠가 일으켰던 그 할아버지처럼 왜 그녀를 일으키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일으키려는 어떤 충동이나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려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해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는 이 믿음이 허락되고 어떨 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은사로 한 때는 명백히 나타나지는 것이요 어떨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저장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어서 언제든지 원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내지는 은사이기는 하지만,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또한 엄청난 지식의 축적이 내게 있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물어올 때 당신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나에게 오면 해결책을 줄게, 결코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있지만 어떨 때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으로 어느 한 순간에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데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의 은사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나는 가르치면서 종종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 또는 예언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은사들은 역사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끔씩 중지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참으로 흥분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에 자주 실례를 사용합니다. 내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진리에 대한 실례가 내 마음에 떠오릅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다. 지혜의 말씀이 온다는 어떤 신호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 떠오르면, 나는 그것을 그냥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한 실례가 그들의 친구들의 상황과 너무나 여실하여 그들은 사실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그들은 서로에게 화를 내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대해서 목사님께 말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람의 마음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설교를 했는데, 물론 그 설교는 라디오를 통해 전 지역으로 생 방송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아닌 문서 선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거짓되고 가장된 사역자들은 그들이 가진 우편 명단의 사람들에게 컴퓨터로 찍은 편지를 보내어, 그것을 의지하여 생활합니다. 그들은 우편을 통하여 매 월 보조를 원하는 그들의 탄원서를 항상 발신인 봉투와 함께 보냅니다. 매 월 내보내는 이 편지 내용에는 그들의 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적혀 있고 그 사역이 계속 되어지도록 보조를 원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가 없게 되면 파산 선거를 내야하는 긴박한 상황임을 또한 알립니다. 그들은 그 우편 수취자 명단의 보조에 의존하여 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 비서가 목사님과 통화하기를 고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매우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사역이며, 내가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문서 선교는 거짓 선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리도 작은 섬에 살고 있으며, 두껍이 열리는 하얀 캐딜락 자동차를 갖고 있으며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잠깐만! 잠깐만! 나는 그냥 내가 만들어 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며, 당신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말씀이 역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은사로 인해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은사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은사.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치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 9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 지라.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오셨다

하였더라. 바울은 여기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음을 감지했습니다. 바울은 영 분별력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람이 치유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게 일어났서 걸어라고 했고, 그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어떤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셔서 치유하셨을 때마다, 당신은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번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수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태껏 사역을 하는 동안 나의 몸이 좋지 않아 강단에 서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린빌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있었을 때, 주일날 세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지러우면서 기운이 너무 없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도 없었고 빙빙 돌고 하여 아들, 척 주니어를 깨워서, 오늘 아침에 나 대신에 네가 설교를 하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척 주니어는 나 대신 1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아파서 오늘 교회에 올 수가 없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옷을 입고 그 다음 2, 3부 예배를 인도하러 나갔습니다. 나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낮게 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토요일 밤에 우리는 교회 건물 뒤에 있는 기도방에 장로들이 모여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 받으십시오. 장로들은 뒤에 있는 방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지셔서 치유해 주실 때, 그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 등 모든 다른 질병들을 놀랍게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0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에 대한 실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녀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바울에 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역사요 바울의 손에 의한 특별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언의 은사,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가보 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빌립의 집에 거하고 있었는데, 아가보 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미래를 예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때, 그것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14장에서 예언에 은사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할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사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여 말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임종의 자리에서 말하기를,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였으며, 주의 말씀이 나의 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선지자임을 인정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 분별력의 은사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8:20절부터 시작하여 이것에 대한 실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안수하매,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터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기적들을 보았으므로 역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기를 원하니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 은사를 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사용하여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마음 속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 마을에서 유명인으로서의 그의 위치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전까지는 시몬이 보여주었던 마술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사람들은 시몬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영광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네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건대(관찰해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들 분별함이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오순절날,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glossa: 모르는 언어)을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오순절 축제를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나매 큰 우리가 모여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약 17개의 언어 그룹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각기 다른 방언들을 알아들었습니다. 언어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각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우리 방언(헬라어로 dialektos)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glossa, 즉 모르는 방언(언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dialect, 즉 그들의 지방 언어였습니다. 저들이 우리 지방에서 쓰는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특정한 목록의 마지막으로,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평소 알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통역함을 말합니다. 번역함이 아니라 통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에는 방언의 통역에 관한 실례가 하나도 없지만, 바울이 14장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말할 것입니다.

구약에 방언의 통역에 관해 언급된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벨사살왕이 그의 귀인 일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벨사살왕이 술에 취하였을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해 놓은 금, 은, 기명들을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갖다 놓은 것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소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으로 술을 마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명들로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할 때 홀연히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아무도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글이었었습니다. 왕은 곧바로 박사들을 불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고 물었지만 저들 또한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태후가 말하기를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온 자로, 그는 꿈과 해석을 말할 수 있으니, 그를 부른다면, 아마도 그가 그 글자들의 뜻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다니엘은 거의 90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왕은 말하기를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메네(MENE)라는 글자의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TEKEL)이란 글자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베레스(UPHARSIN 또는 Peres)란 글자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분벽에 쓰신 단어들을 해석했습니다.

몇 년 전 갈보리 채플의 전환기 시절에 한 불락 떨어진 곳에 작은 예배당을 짓기 전 우리는 일요일 오후에 루터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우리의 모임을 위해 뉴포트에 있는 오락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친 후, 그 당시 한 50명 정도가 모였으므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성경 공부 후에는 의문이 나는 말씀의 질문에 대답도 해 주는 토론하는 시간도 갖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성경 공부 후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 우리 주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 그룹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언을 할 때는 불어로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오늘은 오순절 주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릴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불어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녀가 불어를 말할 때 나는 약간은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어는 낭만적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녀가 주께서 그녀에게 주신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 그것은 정말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 그녀는 나이트클럽의 가수였었는데, 주께서 그녀의 마음에 주신 모든 새로운 노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내 지식으로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통역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 왜냐하면 내 지식과 성령을 혼동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부인인 케이(Kay)가 통역을 하였는데,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주님, 주께서 나에게 이 아름다운 새 노래를 주셨으니, 사랑의 노래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신 노래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구의 권고로 팜 스프링에서 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성경 공부 후에 상담을 하기 위해 인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할 때, 그녀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의 문제를 의논하기 전에, 여기서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왜 한 여인은 불어로 그룹에게 말을 하고 다른 여인은 그것을 통역을 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두 여인 다 불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그 여자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며 나는 그 두 여인들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그 두 여인 중 한 여인이 나의 부인이며 그들은 전혀 불어를 알지 못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해 주고, 방언의 은사와 통역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역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불어를 말한 그녀는 평범한 불어가 아닌 귀족들이 쓰는 엑센트로 불어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나는 충분히 그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으며, 그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성령의 은사의 참된 역사를 목격하므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리에서 5년 간 살았었고 부유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유대인의 배경에서 왔고 팜 스프링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불란서에서 5년 간 살았으므로 불어를 잘 알고, 부유했기에 그곳의 귀족들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은사의 역사가 증명됨을 봄으로 그녀의 마음은 그것이 진실 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당신에게 2, 3 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주께서 주시기도 하고 더 주시기도 합니다. 그 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나 따로따로 나눠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성령이요, 같은 하나님이시며, 같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몸의 하나 됨으로 연결합니다.

**12 몸은 하나(그리스도의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과 손가락들, 손목, 팔, 머리, 발들, 다리 등 우리 몸에는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기관들이 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온전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두 다 필요합니다. 눈들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며 귀, 입 등 모두 다른 특정한 목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필요하며, 한 몸 안에서 모두 함께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두 이러한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들이 있지만, 연합하여 모두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연합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성공회,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등 모든 다른 교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파의 이름 아래 있던 상관 없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기능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갈보리 채플에서만 행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이런 다른 사역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끌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위치한 자리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전체 몸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며, 배타주의로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최고이고, 우리가 전체라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전체 사역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우리로 보도록 도우소서!

**14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그렇다면 매우 괴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성령께서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을 여러 가지로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도와주고 의존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관들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 홀로 앉아 말하기를, 나는 여기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교회가 필요 없고, 또한 성도의 교제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말은 나는 온 몸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온 몸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몸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온 몸이 아닙니다. 아무도 온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며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만일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의로 여기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의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만일 한 부분만 있다면 그것은 몸이 아닙니다.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2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당신의 몸의 모든 지체는 몸의 완전한 기능을 위해 다 필요합니다.

내가 몸의 한 부분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 뛰어나지도 나타나지도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몸의 한 부분이며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온 몸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데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몸의 부분일지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화기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며, 뇌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당신의 심장, 폐 등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몸의 필수적인 기관이며, 모든 몸의 부분이 모든 사람의 볼 수 있는 나타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몸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만족치 않고 싸운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 자신의 몸에 자기의 기능에 대해 이러한 반항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당신이 엄지발가락이 말하기를 덤고 뽕새나며 어둡고 습한 이런 곳에 있는 것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해 줄 수 있는 이마의 한 중앙에 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괴상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뜻대로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분의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 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비록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온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중요한 지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여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중보 기도자라는 배지도 달고 있지 않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없이는 기능을 할 수가 없으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또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 가운데 이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의 임무를 잘 이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몸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아름다움을 약속하셨습니다.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비록 당신이 하는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당신의 사역을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사역을 몸의 한 지체로서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당신의 신실함에 상주실 것입니다.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였으니,** 그것은 앞이마의 중앙에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한 몸임으로 서로 돌보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라서, 만약 당신이 고통 당하면 나 역시 고통스럽고, 만약 당신이 축복을 받는다면 나 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영광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한 몸이므로 나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보리 채플 위에 주신 축복과 영광은 나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온 몸 위에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갈보리 채플 성도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에 우리는 모두 함께 즐거워합니다.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다시 엄지발가락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발가락을 밟으면 어디가 아픈니까? 예, 전체가 아픕니다. 만약 그 밟힌 발가락이 부러진다면 얼마동안은 온 몸이 절룩거릴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각 자마다 우리의 자리가 있고 각기 기능이 있습니다.

**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 순서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첫째가 사도요, 그 다음이 선지자, 그 다음이 교사, 그리고 능력이라. 만일 우리가 목록을 만들었다면 아마도 능력을 첫 번째로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29 다 사도겠느냐? 아니라.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라.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라.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아니라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아니라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활동을 하지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하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거기에는 단일성이 있는 동시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양성도 있습니다.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엇이 큰 은사입니까? 나도 잘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리라 봅니다. 나는 나의 차고에 여러 개의 톱이 있습니다. 세밀한 곡선을 자르는데 쓰는 톱, 나무를 자르는데 쓰는 톱, 쇠를 자르는 톱 등 최신형의 톱들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고요? 먼저 무엇을 자르기를 원하십니까? 파이프를 자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쇠 자르는 톱이 있습니다. 합판에 있는 원들을 자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곡선을 자르는데 쓰는 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은사가 가장 크고 좋은가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에 달려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몸 안에 각 지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는 우리에게 몸 안에 각 자의 자리를 주셨고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곳에서 나의 의무를 다 이행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은사인지를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안에서 목사/선생으로서의 나의 사역에 큰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으므로 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체 안에 나를 부르신 곳에서 꼭 나에게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갈망 또는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지체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한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에서 당신을 더욱 크게 준비시켜 쓰실 수 있도록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능력이나 이러한 모든 다른 것보다도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제일 좋은 길. 더 높은 사랑의 길을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를 계속해 가면서 다음 주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인 13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당신의 몸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세워주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로 서로를 위해 돌보고 관심을 가지며,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옵소서.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그들과 모두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모든 일에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정한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